

2018. 11. 18.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가복음 강해1)

마가복음 1:1-13 “시험,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 I. 들어가면서 -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1절).

먼저 마가복음에 대해 살펴보면 다른 복음서보다 간결하면서도 분량도 작습니다. 분량이 작다고 해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 면에 있어서 완벽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간결한 이유는 이 복음서의 주 독자, 수신자를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가복음의 1차 독자는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신화 이야기처럼 로마에는 여러 우상이 득세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신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여겨지는 분위가 형성되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우상이 아니란 것을 마가는 증명하고자 이 복음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써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증거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처럼 마가복음 또한 로마인들의 대상으로 쓰인 것입니다[보아너게(우레의 아들), 바디매오(디메오의 아들), 달리다굼(소녀야 일어나라), 에바다(열리다) 등의 아람어를 번역했음, 레기온(로마의 군부대 단위), 데나리온, 고드란트(로마의 동전) 등의 로마식 표현을 사용함]. 그래서 마가복음은 유대인의 대상으로 기록된 마태복음과 달리 유대의 색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골 4:10)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인물입니다. 마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지만, 중도 포기하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영적인 아들이라 불렀으며(벧전 5:13) 바울은 마가를 자기 일에 유익하므로 데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넓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최후의 만찬도 그 집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 그 이름 그대로 그 집은 바로 마가의 집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제자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듣고 눈으로 본 자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도 마가와 베드로가 로마에서 함께 동역할 때 베드로를 통해 듣고 배운 것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복음서에서보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베드로가 잘못된 것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적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겸손하게 자신이 칭찬받은 것은 말하지 않고 잘못된 것은 말했던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증언을 마가가 받아 적어 성령님의 감동으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에 내용을 살펴보면, 마가는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데 지체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시작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막1:1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예수란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두 칭호를 앞뒤로 붙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족’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기 보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언젠가 그 왕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모든 압제자와 고통에서 건져 줄 ‘메시아’에 대한 헬라식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단지 여러 왕 중에 하나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표현은 당시 대중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과감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성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독특하고도 유례가 없는 관계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칭호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에서도 나타나지만,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칭호이기도 합니다(마가복음에서 10번 사용). 또한, 이 표현은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 로마 기독교 공동체에 예수님의 전지전능성과 신성의 개념 모두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시작부터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은 그리스도(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열쇠이며 주제인데, 즉,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제 풀어나갈 것이라는 기독교론이 매우 강하게 담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마다 기록론에 대한 주제는 다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특히 강조합니다. 물론 제자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도 담겨 있지만, 그 분량에 있어서 기독교론, 즉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에 대해 의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로마식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뒤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란 뜻인데,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근거이며 핵심이고, 그 복음이 나타나 그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롬1:16-17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 시작을 알리기 위해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 II. 우리도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2-8절).

그분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의 도래로 시작하는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 성취입니다.

막1:2-3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펴라.’”

2절의 구약 인용은 이사야의 책엔 없고 출 23:20과 말 3:1이 혼합된 것입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인용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로마사람들에게 이사야가 더 친근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 선지자는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표성에서 이사야 선지자만 언급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모세오경), 이사야, 말라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 전 엘리야 같은 사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이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나타나고 그 뒤에 이제 진정한 메시아이신 그분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요한의 도래로 복음의 시작을 알립니다. 마치 연극이나 공연을 시작하기 전 오프닝 공연과 같습니다. 본공연이 시작하기 전 오프닝이 있는 것처럼, 세례요한이 하는 것은 오프닝이지만 그 뒤에 오시는 분은 본 공연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격적인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세례요한은 지금 그 오프닝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프닝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성취로 볼 때 오프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하시면 오프닝이 시작되어야지만 메시아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도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꼭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세례요한은 예루살렘 중심지에서 외치지 않고 광야에서 외쳤는가? 이것 또한 이사야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40:3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요한이 의도적으로 광야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아마 세례요한은 부모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자신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인지 알았을 것입니다(“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눅 1:17).

이와 같이 세례요한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그때를 기다리며, 특히 이사야와 말라기 말씀을 늘 묵상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오자 세례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세례요한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막1:4-6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 회개하며 나아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구약의 시각으로 볼 때 종말의 시대가 곧 다가오니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를 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아합 시대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의 죄악을 꾸짖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세례요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속히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한편, 말라기에서는 세례요한을 엘리야로 비유하는데(말 4:5), 사실 세례요한과 엘리야는 닮은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두 분 모두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매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먹는 것이 달랐는데, 세례요한은 메뚜기와 꿀을 먹었고, 엘리야는 때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빵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큰 차이점은 세례요한은 그 호칭에 맞게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세례요한으로 인해 세례 예식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회개의 세례**’라는 표현은 세례의 성격과 목적이 회개임을 알려줍니다. 이는 헬라어 본문에서 ‘회개’에 해당하는 단어 ‘**메타노이아**’의 속격으로서 이어지는 전치사(에이스)와 결합하여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회개는 기존에서 완전한 변화를 뜻하고 세례는 죄로부터의 정화를 상징하는데, 이 두 단어가 결합하여 정결함으로의 변화가 강조됩니다. 즉 세례요한의 외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특히 마가는 과정법을 사용하여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당시 세례요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회개의 긴밀한 연관성은 이 세례가 일종의 고립된 의식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례요한 이후 교회 공동체에서도 회개와 세례는 필수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세례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회개 없는 세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는 세례는 그 효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세례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할례가 있었다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그 당시의 풍습을 하나님께서 채택한 것인데, 세례 역시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종교 전체는 물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의 경우 온갖 종류의 행사 때 씻는 것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세례의 신적 채택이 있기 오래전에 이미 여러 종류의 씻음이 시행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건 생활을 위해 그들은 먼저 샤워를 하고 목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종자들에게는 할례와 제사 외에 세례를 받도록 권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할례와 세례가 동시에 존재했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할례 논쟁) 이후 할례는 점차 사라지고 세례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의 이전의 세례에는 하나님의 은혜 표시와 인(도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하나님의 제정에 의해서만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여 세례를 주도하도록 했고(눅3:2, 3),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 그를 보냈으며(요1:33), 요한의 세례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마21:25)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표시이고 인(도장)이 됩니다.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계14:1). 그렇다고 해서 특수한 사정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

어지는 것이기에 세례는 단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식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무엇이 필수적인지가 중요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세례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막16:16). 따라서 세례는 단지 “죄에 대한 용서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음을 가리키는” 정결의 신체적 표지입니다.

하지만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세례가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고,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고(요3:22, 26)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마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따라서 세례를 명령하지 않는 교회와 세례를 요청하지 않아 세례를 받지 못한 교인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눅7:30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러므로 세례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이유가 서술됩니다. 마가는 여전히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의 독자들이 요한이 전파하는 것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임을 알기 원했습니다.

막1:7-8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 앞에 꿇어앉아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요한이 전파하는 중심 내용은 “그분(메시아)이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보다 강한 분(능력이 많고)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신은 타락한 인간에 불과 하지만 그분은 바로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 뒤에 오신다고 표현함으로써 이제 오프닝 공연이 끝나고 그 뒤 본공연에 들어가는 것처럼 시간적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요한은 퇴장할 것이며 이제 주인공 등장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났습니다(눅1:36).

특히 요한은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방문한 손님들의 신발 끈을 풀고 발을 씻어 주는 것은 종들, 그것도 주로 이방인 종들이 하는 아주 천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비교할 때 자신이 이방인 종보다 못하고 낮고 천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어서 8절에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세례요한은 단지 행위에 있어서 물리적인 물을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영이신 성령을 통해 세례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면 예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를 독촉하여 사람들이 회개했을 경우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을

증명하는 뜻으로 물을 사용하여 베푸는 세례이고, 성령으로 하는 세례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신령한 생명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은 상반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지만, 우리 마음에 임하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3:5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 사이의 차이는 세례의 방식이나 세례의 수단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단지 물로만 행하여진 것이냐?’ 아니면 물로 행하였는데, 성령이 임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1-7에 따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제자들’과 ‘성도’라고 불렸으나, 성령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성령님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주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그들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 Ⅲ. 우리도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에 승리해야 합니다(9-13절).

이제 드디어 기대하고 기대했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던 주인공이 그 기다림을 끝내고 이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 오늘의 주 무대인 요단 강가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막1:9 그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마을에서 요단 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이것을 거부하였지만, 예수님의 허락으로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시행합니다. 이처럼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의문은 예수님께서 왜? ‘회개의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죄가 없으시고 세례가 필요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마3:15) 이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도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시니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성하시고 세례요한의 표현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양(요1:29)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정하신 성례 중 세례 예식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라고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는 성례 중 하나인 성만찬이 중요한 것처럼 세례 또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셨기에 그분을 믿는 우리로서 세례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연극으

로 치면 장엄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배경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막1:10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리다’란 표현은 단순히 열린 것이 아니라 마가는 “갈라지는” 혹은 “찢어지는”(스키조메누스)이란 표현을 상용합니다. 이 표현은 마가만 사용하는데, 다른 복음서(마태, 누가)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열리고’(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이런 단어로 더 생동감 있게 하늘을 열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은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마가는 마치 연극을 보는 것처럼 다른복음서와 달리 현재시제와 생동감 넘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이 갈라진 다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고 하는데,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요즘은 비둘기가 혐오의 대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랍비들은 때때로 비둘기를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46번 사용되는데, 대부분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호세아서에서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호 7:11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마10:16)고 하셨는데, 성령님의 순결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유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분명하고도 해석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명백한 병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수면 위로 운행하셨는데, ‘**운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헐헐 난다**’는 뜻이 있는 것처럼 지금 성령님께서 헐헐 날아서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창조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참여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주체이자 성자 하나님은 주체이면서 대상이 됩니다.

**막1:11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고 아들은 세례를 받았으며 성령은 비둘기처럼 헐헐 날아다니면 임재하셨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던 것처럼, 진정한 왕의 오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프로젝트임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식 장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언급했습니다. 창조와 구속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것 또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며, 세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신이 조화롭게 일한다고 생각하는 삼신론이 아닙니다. 또한 한 분의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일위론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가르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는 삼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이시고, 하나이시면서 세 위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삼위일체를 나타낸 것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연하게 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와 앞으로 예수님이 행할 일을 이미 아시고 “매우 기쁘다”란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 시작과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축복의 장면에서 어두운 음악이 깔리면서 화면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바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막1:12-13 곧 성령님께서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십 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때,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돌보아 드렸습니다.

마가는 ‘곧’으로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은 직후 바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좋은 말로 내보내신 것이지만 원문을 보면 “몰아내신 것(개역개정)”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크발로’란 단어인데, 실제적으로 ‘밖으로 던졌다’란 표현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와 누가는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마태와 누가는 ‘이끌다(에게토)’란 표현을 사용), 마가만 현재시제를 사용해 더 생동감 넘치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까지만 해도 세례를 베푸실 때 임재하셨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광야와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마가는 그 시험의 결과를 밝히지 않습니다. 마가에게 있어서 이 글을 읽을 로마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광야에는 사탄뿐만 아니라 들짐승도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들짐승도 기록했는데, 이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로마 성도들 또한 들짐승의 밥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들짐승에게 내던져짐을 받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그리고 겨우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역사적 증거들을 보아도 그 당시 핍박이 심했을 시기였습니다(AD 63-65년 네로 시대).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니 예수님도 사탄과 들짐승이 많은 곳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했을 때 이 말씀들이 더 가슴에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을 설득하여 불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담을 넘어지게 한 것처럼 그때와 똑같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승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당당히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약성경의 성취자로서의 메시아적 존재임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가득한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히2:18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알차게 단련되게끔 하려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련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도전장의 최고 우두머리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며 우리의 약점을 틀림없이 거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 **IV. 나오면서 -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보며 혀를 찹니다. “저런 바보,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다니!”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사탄의 거짓말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믿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시인할지 모르나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분을 믿지 못하는 마음과 행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혀 믿는 자의 마음과 행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시험은 그것을 확연하게 들어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셨는데, 우리라고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더라고 싸워보고 지는 거랑 싸우지 않고 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알고 있지만, 막상 시험을 받으며 쉽게 무너집니다. 즉, 사탄의 거짓말에 너무 쉽게 놀아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팩트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이겨내고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고전10:13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험을 통과해서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펴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땅에서 인내하고 말씀을 가지고 버티며 또 버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안에서 충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며 물질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마땅하게 그 행동과 행실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시험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구나~!” 우리 또한 주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